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회원국 감사제도 결의서 채택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 12월 런던에서 149개 회원국 대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총회를 개최하고 회원국 감사제도 도입과 시행에 관한 결의서를 포함하여 모두 30여개에 달하는 각종 결의서를 채택했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연안국의 지원이 필요한 조난 선박에 대한 피난처 제공과 선박 재활용에 관한 지침 등도 동시에 채택됐다.

특히 IMO는 이번 총회에서 그동안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회원국 감사제도(IMO Member State Audit Scheme)를 자발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세부적인 시행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총회는 이 결의서를 채택하면서 이사회에 대해 이제도를 시행

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다른 업무에 앞서 우선적으로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IMO는 이같은 결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 제도를 통해 회원국이 선박안전과 해양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국제기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행상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속적인 피드백과 조언을 통해 국제협약의 준수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게 됐다.

한편, 조난선박의 피난처 제공에 관한 지침에서 IMO는 선박에 있는 선원 등의 인명구조에 대해서는 해상 수색·구조협약(SAR 협약)에 따르도록 하고, 이 지침을 해난사고를 당해 위험에 처한 선박이 피난처를 이용하는데 활용하도록 했다.

해난사고로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선박을 도와주고,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최적의 대안은 적시에 필요한 피난처를 제

공하는 것이라고 이 지침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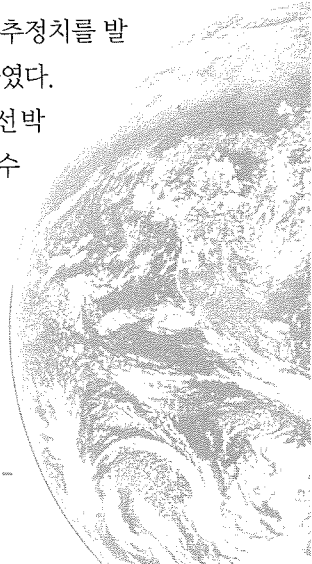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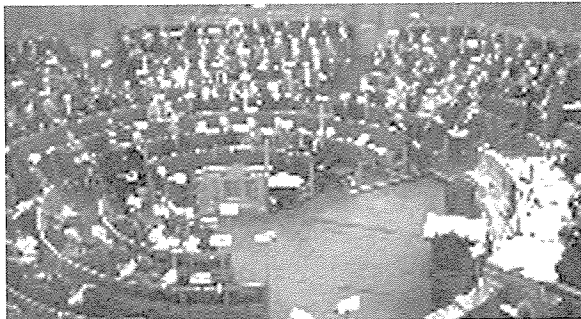
밸러스트수 협약채택 외교회의

IMO는 2004년 2월9일~13일 영국 런던 본부에서 선박의 밸러스트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채택 외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1973년 국제해양오염회의에서 전염균을 포함한 밸러스트수 배출에 대한 영향 연구필요 결의서 채택이후 특별한 논의가 없었던 가운데, 1990년 제30차 MEPC에서 호주 등의 발의를 시작으로 지난 10여 년간 끝어온 국제협약의 최종안이 제49차 MEPC를 통해 제출되었으며 금년 2월 외교회의를 통해 공식 채택키로 합의하였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하루 동안 선박의 밸러스트수를 통하여 이동 가능한 외래 생물종의 수가 3,000여 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이같은 생물종의 이동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가 연간 100억달러 이상이라는 추정치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선박 밸러스트수 배출 규제협약은 외래 생물종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



함으로써 토착 해양생태계를 보호한다는 기본 취지와는 달리 기술 선진국과 해양환경보호국의 강력한 주장으로 높은 기술수준의 협약이 채택될 우려가 있다

동 협약으로 인해 관련 산업기술 개발을 촉진이 예상되지만 해운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운업계의 비용부담의 증가로 국가 경쟁력의 약화가 예상되며 더우기 환경보호 차원을 넘는 기술수준의 강화는 일부 기술 선진국의 기술독점으로 인해 선주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선통신·수색구조 소위원회

IMO는 2004년 2월16일~20일 영국 런던본부에서 IMO 제8차 무선통신·수색구조 소위원회(COMSAR)를 개최한다.

동 회의의 주요 의제는 △전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ITU 해사무선통신 관련 문제 △위성서비스(INMARSAT and COSPAS-

SARSAT) △1979 SAR 및 GMDSS 도입을 포함

한 수색 및 구조 △해상에서 구조된 인명의 처리와 관련한 협약의 검토 △IAMSAR 메뉴얼의 개정 △해

상보안 강화 방안 등이다.

특히 해상보안 강화 방안인 선박의 장거리 식별 및 추적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중이며 동 소위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제79차 MSC에서 기능요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선박설계 및 설비전문위원회

2004년 2월24일~3월5일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제47차 선박설계 및 설비전문위원회(DE)가 개최된다.

동 회의의 주요 의제는 △대형 여객선의 안전 △구명정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연료탱크 보호 △묘박, 계류 및 예인설비 △유조선의 펌프룸 보호 및 구조 작업을 위한 육상컴퓨터프로그램과의 연계 △산적되는 단일창건화물선박에 대한 해수유입경보장치 설치 △산적화물선의 Alternate Loading 금지 △산적화물선의 이중선체구조 △SOLAS 12장 구조기준의 적용 △산적화물선의 적화 및 복원성 자료의 개선 △자유낙하식 구명정 △선상에서의 배출가스정화시스템에 대한 지침 △기타 의제 등이다.

산적화물선 관련 많은 의제와 문서들이 제출되었으며 단일선체유조선의 조기 폐선과 마찬가지로 산적화물선의 이중선체화 및 추가적인 안전관련 규제들에 대한 많은 규제조항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기타 의제에서 근접검사설비(PMA)의 기존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이 논의 중이며 당협에서는 과도한 기술기준의 개정을 통해 실행가능하고 경제적이며 안전과 기술측면에서 효과적인 기술기준의 마련되도록 추진중이다.

IMO, 선선체구조기준 작업착수

IMO는 오는 5월에 개최되는 제 28차 해상 안전 위원회(MSC78)에서 선체의 새로운 구조기준에 관한 검토에 착수한다.

동 회의에서는 선박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선체의 강도요건 등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검토하는 한편,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에 이같은 기준을 수용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구체적인 기준제정작업은 국제선급협회연합회(IACS)가 지난해 12월에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 지는데, 이 내용을 수용할 경우 선체구조에 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